중국 大지진 참사

중국 쓰촨성 대지진의 진앙지인 원촨지역 생존자들이 15일 쓰촨성 두장옌 북쪽 츠핑푸 댐의 붕괴를 피해 균열이 생긴 2백여 미터의 댐을 건너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 직접 피해자 1,000만명 넘어

댐 391개 파손·핵시설 피해 가능성…2차 재앙 '초비상'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1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쓰촨성 일대 댐들이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핵시설도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재앙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15일 직접적으로 지진 피해를 당한 지역은 아바와 청두, 멘양, 더양 등 6개 시로 면적이 6만5천㎢라고 보도했다. 이번 지진 피해지역 면적은 한국 면적인 9만9천㎢의 66%에 달하는 것이며, 22만㎢ 넓이의 한반도 면적의 거의 3분의 1과 맞먹는 규모다.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는 모두 2천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만 1천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150만명인 야안(雅安)의 경우 4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로 전락해 체육관과 임시 보호소 등을 설치했으나 수용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은 붕괴되지 않은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인근 도시로 '피난'을 떠나는 등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으로 쓰촨성 일대 400개에 육박하는 댐이 파손된 것으로 드러나고 핵시설도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2차 재앙 예방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지진으로 쓰촨성 일대 대형 댐 2개와 중형 댐 28개 등 391개의 댐이 파손됐다고 밝혔으나 댐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자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인 수리부는 댐을 비롯한 수자원시설들의 긴급 보수를 위해 충칭 직할시와 쓰촨성, 간쑤성, 산시성, 윈난성 등에 기술진을 긴급 파견했다.

특히 이번 대지진의 진앙지인 원촨현 인근지역인 두장옌 상류지역에 있는 츠핑푸(紫坪鋪)댐에서는 14일 아주 위험한 균열이 발생해 군병력 2천명을 긴급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충칭직할시 시내에 있는 댐 17곳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충칭시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중국 당국은 상류지역의 댐들이 붕괴될 경우 하류지역 댐들도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며 대재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핵감시기구인 '방사능 보호와 핵안전 기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핵시설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통해 피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 50만채 붕괴…'홈리스' 수백만명 난민 생활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50만채에 달하는 주택이 붕괴하면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초토화된 두장옌 지역의 한 공원. 이 곳에서는 약 100가구의 주민들이 천막을 쳐놓고 크래커·라면 등의 구호 식량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졌거나 여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

현재 쓰촨성 각지에서 이들처럼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홈리스' 수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총인구 150만명인 야안(雅安)의 경우 4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체육관과 임시 보호소 등을 설치해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의 주민들은 붕괴되지 않은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인근 도시로 잠시 '피난'을 떠나는 등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재와 플라스틱으로 지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인 장 밍푸(44)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면서 "다른 친척들은 아직도 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난민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천재(天災)로 여기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위기지만, 조만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만이 폭발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7명의 가족을 이끌고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리 안데는 "집이 무너져서 달리 갈 곳도 없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정부가 뭔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열악한 교통사정 이유 국제구조대 지원 거부

중국은 지진에 따른 구호작업을 위해 인명구조용 탐지견과 수색 및 구조전문가를 보내주겠다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41명의 구조대원과 20명이 넘는 의료팀을 재난현장에 급파하려고 했지만 중국측이 100만달러의 한국 구호 성금은 받되 현지의 열악한 교통사정 등을 이유로 구조대 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도 14일 "열악한 교통 사정으로 인해 구조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중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또 눈물…사퇴 임박?

딸 첼시에 선거 운동 감사 표시 "지금까지 많은 국민 만나 영광"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퇴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는 경선완주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지만 이미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의원으로 기운 대세를 되돌리기는 힘든 분위기다. 급기야 힐러리는 14일(현지시각) 패배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힐러리는 또 선거 지원에 나선 딸 첼시에 감사를 표시하며 다시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28살의 외동딸 첼시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일을 자신의 생애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던 경험'이라고 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CNN은 전했다.

그녀는 이날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6월3일까지 이어지는 당내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자신의 경쟁자인 오바마 의원이 싫다고 해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찍는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물론 나는 아직도 당의 대선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 지지자들이 (대선본선에서) 오바마를 찍지 않는다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임을 이해시키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바마의 승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그녀는 "나에게 혹은 오바마 의원에게 (경선기간)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매케인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와 함께 하는 미국과 세상을 꿈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힐러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당은 하나로 단합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오바마-힐러리의 대통령-부통령 동반티켓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답변을 비켜갔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을 만났고, 아름다운 곳을 많이 다닌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경선을 정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연합뉴스

"우주인 임무 완수 신고합니다"

이소연·이산씨 교육과기부 장관에 보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29) 씨와 고산(31) 씨가 15일 오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우주인 임무 완수를 보고했다.

두 우주인은 이날 교육과기부를 방문, 김 장관에게 우주인 훈련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 등 우주인 임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ISS에서 우주퍼포먼스에 사용한, ISS 도장이 찍힌 교육과학기술부기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또 ISS 우주만찬에서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들에게 대접했던 한국우주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ISS 도장이 찍힌 엽서에 글을 적어 김 장관에게 증정했다.

김 장관은 두 우주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씨의 건강 회복을 기원한 뒤 두 우주인이 과학자로서, 그리고 과학전도사로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과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과기부는 우주실험장치와 교육과학기술부기, 엽서 등 우주인 개발사업 관련 자료들을 올 11월 문을 열 예정인 국립과천과학관 등에 전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日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유엔인권위원회의 촉구

일본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룬 14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UNHRC) 회의에서 진땀을 흘렸다.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전쟁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한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였다.

한국은 '성 노예' 문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유엔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일본이 '진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한층 강경한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희생자들에게는 배상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미·일 6자회담 대표 회담 18~19일 워싱턴서

북핵 6자회담 한·미·일 3개국 수석대표들은 18~1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어 북핵 신고문제 등을 집중 협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8~19일 한국과 일본측 수석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와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은 18일 연쇄 양자회담에 이어 19일 3자회담을 갖고 북핵 신고와 검증 등 당면 현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3개국 수석대표들은 또 공식 회담에 이어 만찬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과 북핵 신고 이후 3단계 협상 방안 등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자료에 대해 '완전하다'는 잠정 평가를 내린데 이어 한·미·일 3개국 수석대표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됨에 따라 진통을 거듭해온 핵신고 문제를 매듭짓고 핵폐기 단계로의 이행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조만간 핵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도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다음달 초께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